

第19次 圖書館·情報學 學術세미나 第1主題

연구도서관·학습도서관 이원체제 확립의 문제

부산대학교 도서관

김경희·박인순·장숙희·이시채

정영희·박현우·장덕수

〈목 차〉

- | | |
|-----------------------------|----------------------|
| I. 서 언 | 2. 학습도서관 |
| II. 부산대학교 도서관 운영체제
의 재구성 | III. 제언 및 결언
참고문헌 |
| 1. 연구도서관 | |

I. 서 언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연구 및 교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문헌정보를 수집, 정리, 축적하고 이용을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 봉사하는 대학의 중추기관이다. 달리 표현하면 대학도서관의 봉사 대상은 교수와 학생이며, 질높은 봉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잘 수집 정리된 문헌정보와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서와 쾌적한 도서관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근래 대학도서관에서 수집되는 자료 즉, 정보원의 변화와 이용자의 정보요구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조직과 운영기법 및 봉사형태가 변화되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필연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학도서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봉사활동에 새로운 시각으로 변혁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이용자 집단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려 하고 그 운영체제를 새로이 구성, 조직해 보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시도의 변환인 것이다.

대학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자 집단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문 연구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용자로,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교수, 연구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이용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료구성과 이용공간이 필요하고, 전문화된 사서들이 필요하게 되며, 정보서비스의 자동화 등으로 최대의 문헌정보 서비스 체제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로 좌석을 향해 오는 이용자로서 과제물 처리나 교양독서를 주로 하며 좌석을 많이 요구하는 이용자로 학부과정 학생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양교재 자료를 위주로 구성하고 열람석이 많은 공간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이 두 유형의 이용자 모두를 동일 공간에서 수용, 서비스하여 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용자 군을 공간과 자료의 성질에 맞추어 구분, 이용시켜야 할 필요성을 도서관 관계자들이 오래 전부터 인식하여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은 개선의 실행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도서관이라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적

에 맞추어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위상자체가 명목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대학내에서 미미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당국의 간헐적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당면한 현안들에 밀려 도서관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어지기가 일쑤였다.

부산대의 경우 87년 9월 도서관의 전공 학생들에 의해 대학의 심장인 도서관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도서관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이 개혁운동에서 제시된 요구사항들은 대학인 대중의 지지와 대학사회에 대한 영향의 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대학당국에 의하여 대폭 수용되었다.

이에 같은 달 총장은 도서관발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김정근 교수)하였고 87년 10월 총장은 공고문에서 “도서관 신축사업을 89년도 최우선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후 87년 12월 총장은 도서관발전위원회에 연구비를 지급, 도서관 신축 계획을 연구토록 하여 그 결과 88년 3월 “부산대학교 도서관 신축을 위한 기본 계획 연구”(대표집필 최정태 교수)가 나왔으며 도서관발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이 연구는 대학의 공식문서가 되었다.

이 기본계획 연구에 의하여 연건평 20,000㎡(약 6,000평)규모의 신축도서관이 정부에 건의되었다(별첨 #1 참조). 그러나 예산 절충 과정에서 당시 문교부는 6,600㎡(약 2,000평)의 신축 규모만을 인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구체화된 부산대학교의 신축도서관은 도서관발전위원회가 “부산대학교 도서관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연구”에서 제시한 20,000㎡(약 6,000평) 규모로의 성장계획을 감안하여 설계되었다.

도서관의 독서실화는 부산대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대부분의 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자기의 책을 가지고, 공부할 좌석을 찾아 새벽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많은 좌석 이용자들의 관리에만도 많은 직원들이 매달려 있어야 한다. 과연 대학도서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양질의 장서속에 파묻혀 연구하고 학습해야 하는 것이 대학도서관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좌석을 많이 요구하는 현실에서는 그 좌석 이용자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에 부산대학교는 신축도서관을 건립하는 기회에 좌석이나 교양, 교재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를 위한 학습도서관과, 전문적인 자료 서비스를 위한 연구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이원체제의 도서관 운영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이원체제의 도서관 운영을 계획하게 된 준거는 「신축도서관을 위한 기본계획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정보봉사 체제를 갖춘 연구센터 역할을 하며 개가제(Open Stacks)시스템으로 운용한다. 그리고 현재의 중앙도서관은 「학부도서관」(Undergraduate Library)체제로 전환하고 교재용 자료와 좌석이용을 위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 뒤에 나온 「신축도서관 설계를 위한 일반지침 및 공간계획(부산대학교 도서관 발전위원회)」(별첨 #2 참조)에는 “신축도서관은 중앙도서관으로 설계하며 자료중심 개가제도서관으로 한다. 공간구성은 모듈라 구조로 한다.

- ① 신축 도서관은 관리공간, 자료수집과 정리를 위한 공간,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열람공간, 전산실 공간 등을 포함한다.
- ② 현재의 중앙도서관은 학부도서관으로 활용한다. 학부도서관에는

교재자료, 교양자료가 잔류한다. 그리고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 (less used materials)도 잔류한다”라고 하여 좌석이나 교양, 교재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를 위한 학습도서관과 전문적인 자료서비스를 위한 연구도서관의 이원체제의 도서관 조직을 설계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 연구와 신축도서관 설계를 위한 일반지침에 따라 현재 도서관이 신축중에 있으며 예정대로 93년 중 개관이 되면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운영체제는 연구도서관과 학습도서관 이원체제로 운영될 전망속에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실현을 보게 된 연구도서관, 학습도서관 이원체제 구성내용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도서관의 구성원들이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도서관내에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발전기획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부산대학교 도서관 운영체제의 재구성

— 연구도서관과 학습도서관 이원화 —

1. 연구도서관

연구도서관이란 학자나 특수한 전문가들의 연구조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연구와 조사를 위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본 대학의 경우 연구도서관은 학문연구를 위해 특정전문주제의 자료를 이

용하려는 대학원생 및 교수를 위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조직된 자료중심의 정보센타를 말한다.

연구도서관은 자료중심 도서관으로 우선 가시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람좌석이 별로 없다. 출입하는 인원이 연구자나 교수들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필요한 자료가 검색되면 대출 및 복사를 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중서비스 면적이 적다. 출입자가 학습도서관보다는 현저하게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장서의 구성은 연구자료로 선정된 것만을 비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특정주제의 자료가 집중적으로 수장될 것이다.

넷째, 정보서비스의 기능확대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잘 훈련된 전문사서를 양성하여 적절한 자료제공 및 정보검색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구도서관의 기능은 연구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학문연구에 최선의 조건을 조성해 주는데 있기 때문에 이원체제의 새로운 시스템에 의하여 원하는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질 계획이다.

본 대학 연구도서관 세부 조직에 있어 이용대상자, 공간조직, 자료의 조직, 목록 조직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용 대상자

학부과정 학생(고학년),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교수지도하에 연구하는 대학원생, 교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원, 교환교수, 외부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2) 층별 공간 조직(별첨 #3 참조)

연구도서관에는 행정, 관리공간과 순수자료 이용공간,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1층에는 관장실,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 대출실(출입통제장치 설치), 사물보관실, 관리실을, 2층에는 연속간행물실, 전산실을, 3층에는 서지자료실, 참고열람실, 정부간행물실, 보관실(창고)을, 4층에는 단행본 자료실을 둔다.

3) 층별 자료 조직

연구도서관에는 현 중앙도서관에 구분없이 망라적으로 수장되어진 자료 가운데 연구자료로 분류 또는 지정된 자료만 선별하여 비치 수장한다. 연구도서관에 둘 자료는 언어, 내용, 형태, 이용자군 등을 고려하여 선별하나 관리상의 문제도 선별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도서관에는 각 층별로 다음의 자료를 비치한다.

- (1) 1층(행정, 관리공간) : 1층은 행정, 관리공간으로서 이용자료는 비치하지 않고 사무용 자료만 비치한다.
- (2) 2층(연속간행물실) : 연구도서관으로 지정된 외국학술잡지와 국내의 국·공립연구소, 시험소, 특수법인에 의해 설립된 조사기관, 기업체 부속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보고서, 연구정보의 교환과 경험의 교류를 목적으로 횡적 조직을 가진 학회, 협회에서 간행되는 연속간행물, 마이크로화된 자료 등을 2층 연속간행물실에 둔다.
- (3) 3층(참고서지자료실) : 정부간행물(본 도서관은 집중적으로 정부간행물을 수집할 예정이다)은 정부간행물실에 둔다. 개개의 문헌을 식별하기 위해 서지사항을 기술하거나 배열한 문헌 및 색인 초록류는 서지자료실에, 양서, 일서, 중국서의 참고도서와

국내에서 발행되는 사전, 백과사전, 연감, 주소록, 어휘 및 용어 사전등은 참고자료실에 두어 3층 전체를 트인 공간속에서 종합적인 참고서지조사실로 구성하여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4) 4층(단행본 자료실) : 연구자료로 분류 지정된 양서, 일서, 중국서의 단행본 자료와 국내자료중 단행본 형식의 일반연구논문, 1910년 이전의 개인문집류, 대학원 교과과정에 해당되는 도서, 경전, 불전류, 족보, 일시적인 기관안내서가 아닌 주제의 흐름이 있는 년사류, 일반보고서, 발췌보고서, 개론적인 서술형식의 편람류, 기타 단행본중 이용빈도가 높으며 연구가치가 있는 자료는 4층 단행본실에 비치한다.

4) 목록 조직

도서관에서의 목록은 이용자에게 자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이정표이고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한 캠퍼스 안에 몇개의 도서관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도서관 자료에 대한 목록을 한 곳에 비치해 두고 각각의 도서관 목록이 부분적으로 구성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나, 이러한 개별목록을 구성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 대학 신축도서관이전계획의 구체적 방안(제4항)에는 “일시적으로 연구도서관 자료의 목록은 연구도서관에 두고 학습도서관 자료의 목록은 학습도서관에 두기로 계획하였다. 단, 조속히 전산화 목록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도서관과 연구도서관 어디에서나 터미널을 통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연구도서관 자료의 목록만 연구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목록이 일원화되지 않아 당분간은 이용

에 불편이 있겠지만 인력과 예산, 시간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열람용 목록함에서 연구용 도서목록(열람용 서명목록, 저자목록, 분류목록)을 색출하여 연구도서관에서 활용토록 한다.

2. 학습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출입자의 최근 4년간의 동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도서관 출입자 이용 동향(1988~1991)

	총 출입자	자료 이용자	자료 이용률	좌석, 공간이용율
1988	3,152,843	739,877	23.5%	76.5%
1989	3,867,788	654,616	16.9%	83.1%
1990	3,697,947	614,948	16.6%	83.4%
1991	3,941,259	585,139	14.8%	85.2%

위의 통계를 볼 때 총출입자중 80%이상의 이용자가 자료보다는 좌석, 공간이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계의 신빙성, 특히 총출입자 통계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이 표에서 어떤 경향을 파악할 수는 있다고 본다.

연세대학교 류도열의 「대학도서관 열람공간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① 학생들의 공부하는 장소로 대학도서관을 찾는 비율이 48%, ② 과제물 작성과 시험준비 목적으로 38%, ③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므로 36%로 되어 있다. 이상의 통계로 미루어 보아도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좌석과 과제물 작성 및 가벼운 읽을거리를 위해서 도서관을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학도서관이 대다수의 이런 이용자들을 아주 외면해 버릴 수는 없다. 본교의 경우 이런 이용자들을 위하여 현 중앙도서관을 학습도서관으로 전환하여, 교양교재용 자료와 좌석을 위주로 하는 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열람공간의 기능을 확대시키고 세미나 공간, 휴식공간을 확보하며 캐럴공간 및 자료보존공간(보존서고)을 확보하여 종래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벗어난 학부학생들을 위한 본격적이며 새로운 타입의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여 운영될 계획이다.

학습도서관의 세부조직에 있어 이용대상자, 공간조직, 자료조직, 목록조직의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용 대상자

과제물을 처리하거나 소설, 수필 등의 가벼운 읽을거리를 위해서 오는 학부과정 학생들과, 좌석을 이용하려고 하는 학부과정학생 및 대학원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층별 공간 조직(별첨 #3 참조)

학습 도서관에는 순수자료 이용공간, 일반열람공간, 자료 보존공간, 캐럴공간, 세미나공간, 휴식공간, 관리공간을 확보한다. 1층에는 제1열람실, 학생휴게실, 보존서고, 시청각실, 매점, 관리실, 창고들, 2층에는 부관장실, 제2열람실, 참고열람실, 연속간행물실, 학위논문실(임시), 개인열람실, 세미나실, 창고를 3층에는, K. D. C(P)서고, 제3열람실, 제4열람실, 보존서고, 대학원열람실을, 4층에는 단행본자료실, 특수자료실(임시), 고전자료실(임시), 제5열람실, 제6열람실, 제본실을

두어 자료 이용공간과 좌석이용공간을 조화롭게 비치한다.

3) 실별 자료 조직

(1) 연속간행물실 : 국내에서 발행되는 일반잡지와 기업체, 협회, 비영리단체나 기관에서 고객이나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발행하는 기업체지, 동인지, 교지, 신문 등을 비치한다.

(2) 학위논문실 : 국내 각 대학에서 발간되는 석, 박사 학위논문을 비치하지만 4,000평의 도서관이 희망대로 증축되면 이관 비치할 예정이다.

(3) 참고열람실 :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사전, 백과사전, 어학사전, 용어사전 등의 참고도서는 복본을 구입하여 연구도서관과 학습도서관에 각각 비치한다.

(4) 단행본자료실 : 국내의 각종 교양자료, 교재자료는 단행본 자료실에 비치한다.

(5) 고전자료실 : 동려문고, 몽한문고, 지정문고, 직제문고, 해창문고 등의 영남지방의 각 문중 및 개인의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자료와 한국본 고서, 약간의 중국본 고서, 영인 또는 복제된 고전자료의 가치가 있는 자료는 장정에 구매됨이 없이 고전자료실에 둔다. 고전자료실은 연구도서관의 공간문제로 임시로 학습도서관의 공간에 두게 된다.

4) 목록 조직

일시적으로 학습도서관자료의 목록만 학습도서관에 둔다. 단, 조속히 전산화 목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도서관과 연구도서관 어디에서나 터미널을 활용하여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Ⅲ. 제언 및 결론

도서관을 찾아오는 두 형태의 이용자들에게 각각의 요구에 맞는 이원체제의 도서관 운영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이며 전진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며 보다 전문적인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서들의 열망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원체제의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서들 스스로가 주어진 업무에 창의성을 발휘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신축도서관은 2,000평 규모의 4층 건물로서 공간의 부족으로 석, 박사학위논문실을 비롯, 고전자료실, 특수자료실 등은 할 수 없이 학습도서관에 남겨져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처음의 계획대로 나머지 4,000평이 확보되어 연구자료로 지정된 도서를 모두 소장하기에 충분한 시설, 적절한 관리공간, 이용자들이 이를 활용하기에 안락한 설비를 갖춘 쾌적한 연구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제담당사서(응용, 자연, 인문, 사회)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선정도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원체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질 높은 장서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장서개발이 이루어져야겠다. 주제별 도서위원(교수진)제를 실시, 학과별 전공도서의 선정에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오늘날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는 변해가고 있다. 그들은 도서자료보다 정보 그 자체를 찾는 경향이 늘어간다. 다변화되고 있는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족시켜 주는 최선의 정보서비스 방법을 모색하여 이것을 도서관에 도입, 실용화하

는 일이 도서관의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전산망」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넷째, 교수가 학생들의 학습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읽어야 할 자료를 지정하여, 도서관의 일반장서로부터 별치하도록 하고, 이들 자료를 수업진행에 따라 필독 또는 참고하도록 하여, 수업활동을 촉진시키는 지정도서제를 실시하여, 도서관자료 활용을 통한 과제학습 방법을 도입, 학습효과와 학습능력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연구도서관과 학습도서관 이원체제 운영이 계획된 방향으로 잘 운영되어진다면 학습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자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잘 선별되어진 자료들을 친절한 사서들의 도움을 받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연구도서관을 찾아오는 연구자들은 역시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깊이 있고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아 학문연구에 정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는 이원체제 확립의 길이 서비스 전문화의 길로 연결되며 그것은 곧 사서직 자체의 전문화의 길로도 연결이 되리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참 고 문 헌

- 최정태, 부산대학교 도서관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연구, 부산:부산대학교 도서관발전위원회, 1988.
- 류도열, 대학도서관 열람공간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신축도서관 설계를 위한 일반지침 및 공간계획” 부산대학교 도서관발전위원회, 1989. 2.
- “신축도서관 설계를 위한 세부지침 및 공간계획” 부산대학교 도서관발전위원회, 1989. 4.
-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이원화 문제: 학부생들을 위한 서비스” 부산대학교 도서관발전기획 세미나 시리즈 발표원고, 1992. 2. 21
- “이전준비 이렇게 되고 있다” 부산대 도서관발전기획 세미나 시리즈 발표원고, 1992. 7. 31.